

# ‘깨달음은 인식의 전환’ 주장 제기

## 아태불교문화연구원 ‘불교의 인식과 언어’ 국제학술대회... 라직 교수 ‘주목’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새벽별을 보는 순간, 정각(正覺)을 이뤘다고 한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요체는 과연 무엇일까? 중생이 곧 부처였다는 자각, 유아독존한 줄 알았던 존재가 상의상관한 연기(緣起)로 얽혀 있더라는 자각이 아니었을까? 한 마음 둘려 중생이 부처되는 자리,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가 하나된 자리를 바로 본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식의 전환이었다.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 했다. 부처는 중생이 탈바꿈해서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중생의 인식이 자성의 인식으로 완전 회귀한 존재일 뿐이다. 아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법산)이 5월 30일 동국대에서 ‘불교의 인식과 언어’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깨달음은 인식의 전환’이란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행사에는 홀스트 라직 교수(오스트리아 비엔나대)를 비롯해 파리말 파틸(미국 하버드대), 맥가리터 앤드류 박사(호주 시드니대) 등 불교인식학 관련 해외석학들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홀스트 라직 교수는 주제발표 ‘현대불교학계에서의 불교인식론연구의 회고와 전망’을 발표했다.

라직 교수는 “불교인식학파의 가장 큰 특징은 이타행의 보살도를 실천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도구로서 인식과 논증을 수행과 연관지어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이라며 “어떤 사람이 스스로 알아야 할 것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에야



5월 30일 아태불교문화연구원이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 및 토론하는 홀스트 라직 비엔나대 교수(가운데)와 최종남 교수(왼쪽), 황순일 교수.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홀스트 라직 교수는 불교인식은 리학파의 소의 논서인 <집량론(集量論)>과 저자 지나(Dignaga, 480-540)에 주목했다.

라직 교수는 “<집량론>이 저술되지 않았다면 인식논리학파의 전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거나, 애초에 전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극찬했다.

지나는 인도, 티베트 인식논리학자들에게 추앙받는 학자다. 지나는 어릴 적 친구였던 왕자를 만나 왕국의 절반을 나눠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 산속에서 금욕 생활을 하며, 오전에는 탁발을 했고, 오후에는 100여 권에 달하는 논서를 저술했던 인물이다. 그는 인식 가능한 대상을 자상(自相)과 공상(共相)으로 분류했다. 지나의 사상은 인식과 논증의 대주제에 따라 <집량론>에 집약됐다.

<집량론>의 저술 목적은 귀경제로 축약된다.

“바른 인식의 현신(現身)이시고, [모든] 중생의 요의를 바라시며, 스승이시고, 선사이시며, 구호자이신 부처님께 예경드리며, 바른 인식수단을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논서들에] 산재한 내 이론들을 집대성하기 위해 <집량론>을 저술하고자 한다.”

이어 홀스트 라직 교수는 “지나는 인식과 논증의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함에 있어 ‘자신을 위한 추론’과 ‘타인을 위한 추론’으로 증명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라직 교수는 “비엔나대의 불교인식학 연구는 예리히 프라우발너에 의해 시작됐다”면서 “프라우발너는 원전을 중심으로 한 문헌 비평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비엔나대에는 프라우발너의 제자로 아포하론을 티베트역에서 완역해 낸 슈타인켈러 등 불교인식논리

학에 관한 석학들이 있다.

파리말 파틸 교수는 ‘불교의 인식과 수행’을 발표했다. 파틸 교수는 “불교인식론자들의 견해가 수용에 절대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파리말 파틸 교수는 “지나를 계승한 법칭(Dhamakirti, 600-660)은 인도철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논사”라고 말했다.

파틸 교수는 “법칭은 <양결론(量決擇論)>과 <집량론>의 주석서인 <양평석(量評釋)>등을 저술했다”며 “특히 <양결론>은 유용한 것을 얻고, 유용하지 않은 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 올바른 인식인지 알아 함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치고자 저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말 파틸 교수는 “불교인식론자들의 연구는 종교적 추론과 철학적 분석을 위한 하나의 모범을 제시했다”며 “이 모범에 의거해 이성적인 사람은 언젠가는 일체지자(一切知者)가 돼 법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틸 교수는 “철학적 분석은 불교적 수행의 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맥가리터 앤드류 박사(호주 시드니대)는 ‘좌의 아포하론: 새로운 학설인가? 법칭 이론의 재해석인가?’를 발표했다.

앤드류 박사는 “불교의 아포하론과 대론자 사이의 논쟁은 아포하론에 국한되지 않고 ‘타자(anymal)’에 대한 규정 등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정운 스님 등

#### 4명에 연구비 전달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6월 9일 오후 2시 서울 부암동 W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학술상 시상식 및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정운 스님, 이필원 박사(동국대 강사), 양승이 박사(방통대 강사), 표정옥 박사(서강대 강사) 4인에게 총 1400만원의 연구비가 전달됐다.

학술회의에서는 △조사선성립에 대한 소고(정운 스님) △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불교시문학의 전개형태 연구(양승이 박사) △불교축제가 현대사회에 함의하는 문화기호학적 의미와 대중성(표정옥 박사) △사타나파타에 나타난 번뇌론과 수행론 고찰(이필원 박사)이 발표됐다. (02)734-9653

조동섭 기자

### ‘요기학연구’ 발간

#### 한국요기학회

한국요기학회(회장 김순금)는 최근, 재창립 4년 만에 학술지 <요기학연구>를 발간했다.

책에는 ‘관찰하는 자기에 관한 고찰-심리학, 요가, 의식연구 접점의 모색’ ‘하타요가 빠르디빠까 제3장 무드라의 국역과 주해’ ‘인도철학과 해탈의 관계를 둘러싼 한 논쟁’ ‘요가심리학의 개념과 전망’ ‘일본의 요기학연구-현황과 연구목록’ 등 논문이 게재됐다.

또 엔도 코우 교수(일본 아치분교대)의 ‘요가의 신비 체험과 지식’과 쿠모이 쇼젠 교수(일본 오타리대)의 ‘요가학과 불교의 교섭’ 등 해외 학자들의 논문이 수록됐다.

조동섭 기자

### “원효 사상 당시 유행 사상 집산물”

#### 김원명 교수 한국불교학회서 주장

무애행으로 불교대중화에 앞장섰던 인물, <대승기신론> 등의 다수의 저술로 한국불교학의 독창성을 드러낸 원효 스님의 사상이 당시 유행하던 사상 등을 수용해 이뤄낸 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는 5월 30일 동국대에서 제49회 전국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김원명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주제발표 ‘원효 사유의 고유한 유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원효가 노장사상에 능통했다”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원효 스님은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불교철학자로서의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김원명 교수는 “원효가 고대 한국 말을 썼다는 사실로 볼 때 원효는 당시의 문화전통을 경험하며 살았다”며 “원효는 [노장사상 이외에도] 전통사상을 포용적인 자세에서 수용하는 등 이교 사상에 대해 열린 자세를 견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조교수가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추대제와 선거제를 비교·연구한 결과를 발표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 도술계곡 등 명승 지정 예고

#### 문화재청, 미항사 일원 등 6개소

문화재청(청장 이근우)은 6월 1일 ‘고창 선운산 도술계곡 일원’ ‘해남 달마산 미항사 일원’ 등 6개소를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고창 선운산 도술계곡 일원’은 수려한 자연을 배경으로 고창 선운사 도솔천 내원궁과 도솔암 등 불교 관련 문화재가 분포해 있다. 선운산은 도솔산이라고도 했는데 둘 다 불도를 닦는 산이라는 의미다.

‘해남 달마산 미항사 일원’은 달

마산 능선의 바위와 미항사가 남해의 섬과 어우러진 경승지다. 달마산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자리 잡은 미항사는 신라 경덕왕 8년(749) 창건된 고찰(古刹)이다.

이날 문화재청이 명승 지정예고한 6개소는 2008년 광주, 전라도 지역의 명승지원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무주천동 일사대 일원’ ‘무주천동 파회, 수심대 일원’ ‘담양 석영정 일원’ ‘담양 명옥헌 원림’도 지정예고했다.

조동섭 기자

### “마음은 어떻게 움직일까?”

#### 밝은사람들 6월 13일 학술연찬회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一切唯心造)’고 한다. 마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움직일까? 존재하는 듯 하지만 잡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마음을 주제로 학술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밝은사람들(소장 박찬욱)은 6월 13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초기 및 삼파불

교-미산 스님 △유식불교-한자경이화여대 교수 △선불교-윤원철 서울대 교수 △서양철학-최화경 현대대 교수 △정신의학-김종주 라강정신분석연구소장 △인지과학-이정모 성균관대 박사 등 전문가들이 각각의 주제발표를 통해 마음의 작용에 대해 조명한다.

한편, 학술연찬회 발표자료집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윤주사 편)는 시중 서점에서 만날 수 있다. (02)926-8361

조동섭 기자

### 통일신라 마애미륵불의상 발견

#### 문명대 東大 명예교수 “고석사서 확인”

일본강점기 석고가 입혀져 감춰졌던 통일신라시대 마애미륵불의상(佛像)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특히 발견된 마애미륵불의상은 현존 유일한 통일신라시대 미륵불의상으로 알려지면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6월 4

일 “포항 고석사 보광전 마애불상의 석고를 제거한 후 살펴본 결과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마애미륵불의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명대 교수는 “이번 고석사 미륵불의상은 고신라 1구(삼화령 미륵세존), 고려시대(법주사 마애미륵불)에 이어 3번째 미륵불의상일 뿐만 아니

라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유일한 미륵불의상으로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문명대 명예교수는 이번 마애미륵불의상의 역사적 의의 등과 관련해 13일 오후 2시 동국대 덕안캠퍼스(마애미륵불)에서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02)3673-3426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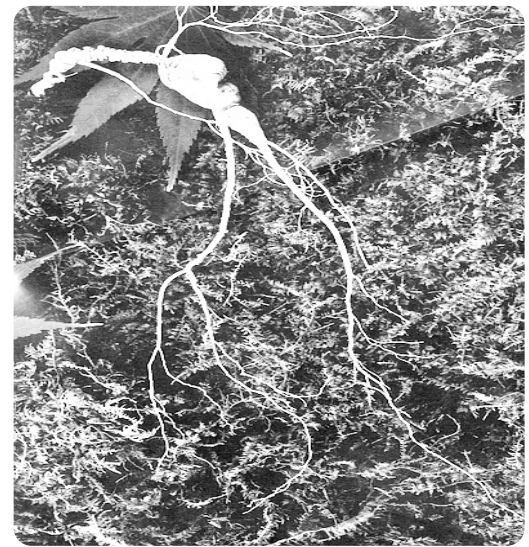


문명대 명예교수가 새로 발견한 포항 고석사 보광전 마애불상.

###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복지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본초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 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비란?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장비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비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연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부진),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비를 조금만 먹어도 주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을 개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壽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으로 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별도상담(자연산삼, 장뇌산삼)
- 100년, 120년 자연 산삼 5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의상담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심마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검정품 (분식 51160-150)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7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시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성, 쇄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법반 (1년)	요집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7월 9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7월 10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원원은 초중과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